



리포트

겨울철 대설·한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무단계도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범 정부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기습 폭설로 고속도로가 통제되고 국도 통행이 마비되는 상황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2017년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영동지역(속초)에 최대 35cm, 시간당 최대 9.4cm의 폭설이 쏟아졌다. 이를간 적설량은 강원 북강릉 31.3cm, 고성 47cm, 속초 35cm, 서울 6.6cm, 세종 12cm, 전북 순창 10.5cm, 전남 나주 5.5cm, 경북 구미 6cm에 달했다. 당시 고갯길과 램프 구간이 결빙되고 월동장비가 없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설마저 지연돼 동해고속도로의 6개 나들목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국도 7호선에도 통행이 마비되고 5시

간 이상 고립된 차량이 속출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적설량, 최저기온, 도로시설, 경사 등을 감안해 1천 630개의 제설 취약구간을 1~3등급화하고 맞춤형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 계층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겨울철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한파 특보 시 위험정보(특보, 체감온도) 및 행동요령을 마을·가두방송 등을 통해 매일 2회 이상 홍보하고 있다. 독거노인 등 34만여명에 이르는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2만7천명의 재난도우미가 현장 투입된다. 겨울철 저체온증 위험 계층에 대해 긴급 지원하고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채호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과거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대설 및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지역별 맞춤형 상황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하고 개인의 안전과 함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❶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과거 발생했던 겨울철 주요 재난과 피해 사례 및 개선 사항을 안내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과거 사례를 관계부처, 지자체와 공유해 맞춤형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에게는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겨울철 대설로 인한 재산피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243억원에 달해 과거 30년간 연평균 1천65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을 보면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에서 피해가 집중하여 발생(92%)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집중 관리로 사망자는 2013년 13명에서 2018년 10명으로 감소했지만 겨울철 평균기온 상승에도 한랭 질환자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 2월 15일 내린 폭설만 하더라도 겨울철 긴급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보여준다. 당초 1cm 내외의 눈이 올 것이라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 새벽부터 2.4cm의 기습 폭설이 내렸다. 당시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데다 해당 지자체도 뒤늦게 나서는 바람에 제설 작업까지 지연됐다. 이 때문에 수

도된 출근길이 극심한 혼란을 겪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사전 예고 없이 내리는 기습적 폭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기상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알람'(적설량에 따라 자동문자 발송)의 수신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재난 및 도로부서 공무원만 수신했지만 제설 차량 운전자 및 도로 보수원 조장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대책본부 비상근



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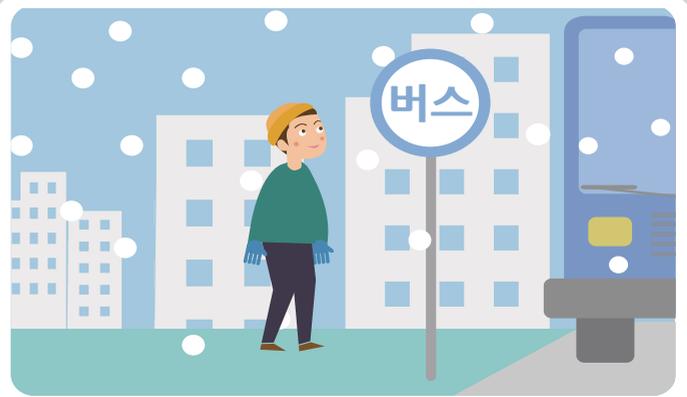
산간 고립 우려 지역에서는 식량, 연료 등 **비상용품**을 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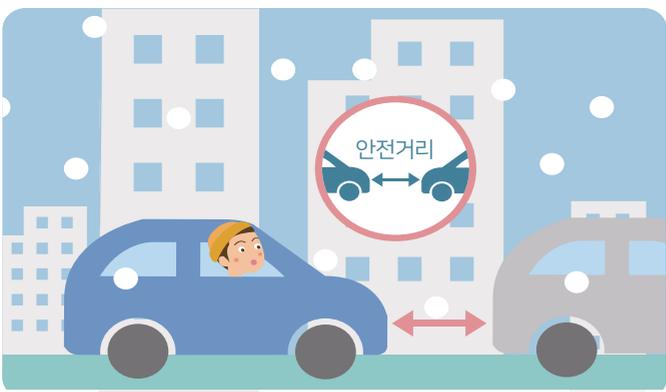
내 집 앞 눈을 수시로 치웁니다.



스노체인, 염화칼슘, 삽 등 **자동차 월동용품**을 준비합니다.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차량이 고립된 때는 **119**에 신고하고, 차 안에서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구조**를 기다립니다.